국 무 조 정 실
국무총리비서실

보도자료

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11. 4.(수) 15:00

대테러센터, 군·경찰·해경 저격수 합동 역량 강화훈련 실시

- 대테러특공대·특수임무대 저격수 실전 대응역량 및 관계기관 공조체계 강화

□ 테러 현장에서 인질의 생명을 구하고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**저격수들의 실전 역량 강화**와 **대테러 작전 공조체계 확립**을 위한 훈련이 **군·경찰·해경 합동으로 실시**됐다.

□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(센터장 박원호)는 11. 2.(월)부터 11. 4.(수)까지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(해병대 훈련장)에서 **3개 기관 23개 부대가 참가**한 가운데 **「대테러특공대 저격수 역량강화 훈련」**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.

< 대테러특공대 저격수 역량강화 훈련 개요 >

◆ 대테러특공대 및 특수임무대 저격수의 실전적 대응능력 향상과 관계기관 간 전술·장비 정보 공유를 통한 대테러 작전 공조체계 확립

- (**기간 / 장소**) 11.2.(월)~4.(수) /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
- (**참여**) 대테러센터 등 4개 기관
  - 경찰청 : 서울경찰특공대 등 14개 특공대
  - 해양경찰청 : 중부지방해양경찰특공대 등 5개 특공대
  - 국방부 : 육군 707특수임무단 등 4개 부대
- (**훈련내용**) △ 탄도 보정 이론 및 풍속·거리별 탄도 보정 실사격
  △ 대물 저격총기(12.7mm) 거리별 분포도 시험
  △ 신속사격술 실습 및 기관별 전술·장비 운용 사례 공유 등

□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경찰청, 해양경찰청, 국방부 소속 **대테러 전담조직**에서 **총 45명의 저격수가 참가***했다.

* 경찰청(서울·부산·인천·광주·대전·울산·세종·경기북부·강원·충남·전북·전남·경남·경북 등 14개 경찰특공대), 해양경찰청(중부·서해·남해·동해·제주 등 5개 해양경찰특공대), 국방부(육군 707특수임무단, 해군 특수전전단, 공군 제259특수임무대대, 해병대 특수수색여단)

○ 테러 현장에서 인질 구출과 테러범 제압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**저격수의 정밀사격 능력을 높이고**, 소속이 다른 **대테러 전담조직 간 전술·장비 정보를 공유**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

□ 훈련 1일 차에는 미국 경찰 저격수 협회(American Sniper Association) 사례 소개와 함께 탄도 보정 및 신속사격술 이론 교육 등을 실시했다.

○ 이어 훈련 2~3일 차에는 소속 기관을 섞어 혼합 조를 편성한 뒤, 풍속과 거리 구간별 탄도 보정 실사격, 대물 저격총기(12.7mm) 분포도 시험 등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순환식 사격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.

○ 아울러 매일 훈련 종료 후 기관 합동 강평을 통해 사격 결과와 전술 운용상 개선점을 공유하고, 실제 대테러 작전 시 기관 간 저격수 협조 절차를 점검하였다.

□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은 “테러 현장에서 **저격수의 한 발은 인질의 생명과 작전의 성패를 좌우**하는 만큼,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”고 강조하며,

○ “이번 훈련을 통해 경찰·해경·군 대테러 전담조직 간 전술과 장비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고, 실제 작전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**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**하겠다”고 밝혔다.

○ 아울러 “**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**인 만큼, 훈련 전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**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**”고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	책임자	부 장	전창현 (02-2100-2032)
		담당자	원 사	정진선 (02-2100-206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